



[정책동향] 뉴질랜드, 어린이 당 섭취 저감 위해 교내 허용 음료 재정비

- 물,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 무가당 식물성 우유만 제공



뉴질랜드 정부가 어린이들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물, 저지방 우유 또는 식물성 우유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연구결과를 인용해 충치가 뉴질랜드 어린이들의 가장 흔한 질병으로 꼽혔으며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어린이 비만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내 허용 음료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내에서는 물,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12가 강화된 저지방 또는 무가당 식물성 우유만 제공될 예정이며, 오는 6월 2일까지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교내에서 판매 또는 제공하는 음료만 제한하는 것이지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학교에서 건강한 음식과 음료를 권고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rnz.co.nz / newshub.co.nz, 4월 7일 >

[시장동향] 세계 유제품 대체식품 시장, 2031년까지 연평균 약 14% 성장 전망

- 유당불내증 소비자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시장 확대 추세



식물성 대체식품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유제품 대체식품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시장조사업체인 얼라이드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가 발표한 유제품 대체식품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장 매출이 131억 달러(약 16조 121억 원)를 기록한데 이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13.99% 성장하며 오는 2031년에는 매출이 554억 달러(약 67조 2,2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유당불내증으로 우유 섭취가 힘든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 증가하면서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는 두유가 지난해 유제품 대체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점유하며 선점하고 있으며 아몬드 우유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의 혼란으로 원자재 운송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인력난으로 시장 성장이 저해되었으나 금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4월 7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